



▲ 양돈협회 여주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이용복 부지부장, 원종섭 총무, 김건호 지부장, 김경팔 회원, 유경선 주임, 최인규 양돈전문 공수의.

액비유통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경기 여주지부

취재 : 정재은

경기 여주지부(김건호 지부장, 51세)는 액비유통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는 분뇨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여 팔당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액비유통센터를 200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액비 운반차량, 살포차량, 살포기 등의 장비를 마련해 놓고 전문 기사들이 회원 농가의 분뇨를 수거하고 있으며,

경종농가에 직접 살포하는 업무까지 도맡고 있다. 회원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축분처리와 비용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고, 경종농가에는 토양 지력보존과 친환경 유기농작물을 생산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여주지부는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관납 백신이 나오거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

락을 해주고 있다. 또한 타축종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질병 발생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공동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여주군의 지원 아래 농장 출입구 무인 소독기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뇨 액비화 사업 전개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여주지부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팔당상수원 및 생활환경 오염 방지와 환경 친화적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을 2001년부터 전개해오고 있다. 액비탱크는 200톤급 21기, 300톤급 1기, 500톤급 4기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액비 운반차량은 8.5톤짜리 1대, 5톤짜리 4대가 있으며, 액비 살포차량 1톤짜리 1대가 있다. 액비 살포기로는 트랙터가 부착된 3톤짜리 7대, 호수형 살포기 2조, 엔진부착펌프 1대가 있다. 전문 운전기사 3명이 회원농가의 분뇨를 수거하고 있으며, 경종농가에 액비투입 및 살포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액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주군과 농업기술센터, 관련업체, 환경부와 연계한 협

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액비 성분분석, 살포량 측정, 살포시기 등을 지도하고, 여주군 및 관련



▲ 액비 운반차량은 8.5톤짜리 1대, 5톤짜리 4대가 있으며, 액비 살포차량 1톤짜리 1대가 있다.



▲ 경기 여주지부 김건호 지부장

기자재업체에서는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액비살포 시연회 및 각종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여주지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구체적인 액비 살포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액비화 사업으로 회원 양돈농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축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설 및 운용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종농가에 속효성을 가진 액비의 보급으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효과와 토양의 지



▲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여 환경친화적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액비화 사업을 2001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다. 우측부터 이용복 부지부장, 김건호 지부장, 손정락 기사, 이석철 기사, 원종섭 총무, 이광철 반장(기사)



▲ 전문 기사들이 액비살포기를 통해 경종농가에 직접 살포하고 있다.

력 증진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의 유기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여주지부는 2004년에 여주군 등 정부기관의 지원아래 10,000톤(2,000톤급 5기) 저장 가능한 액비탱크 설치로 일일 100톤 분뇨처리가 가능한 액비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작과 고구마, 고추 등 특수작물 뿐 아니라 배 등의 과수작물에 액비를 공급해 나가기 위해 경종농가와 끊임없이 교류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돈농가들은 1일 120톤 처리가 가능한 공공처리장을 통해 일부 노를 처리해 나가고 있다.

주도적으로 지역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여주지부

여주지부는 1988년 6월 설립 이후 현재 제5대 김건호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단합하여 각종 사업과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여주지역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여주군에서는 110여개의 양돈농가가 15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여주지부는 81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여주군 전체 사육두수의 90% 수준인 13만5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3,000두 이상 규모 10농가, 1,000~3,000두 규모 60여 농가, 1,000두 이하 규모 10농가로 회원농가는 대부분 전업규모이며, 평균 사육두수는 1,500~2,000두 정도 된다. 임원은 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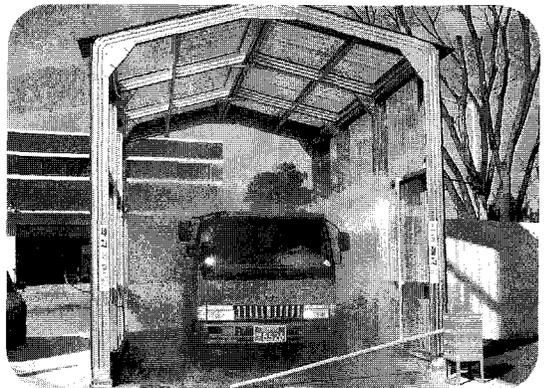
호 지부장, 이용복, 이길수, 심석수 부지부장, 안장현 감사, 원종섭 총무, 원동학 사무장, 윤상익, 정병성, 박순양, 김현민 고문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면 단위별로 조창준을 비롯한 10명의 운영위원이 있다.

한편 여주지부는 액비화 사업으로 분뇨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환경개선제, 니플 등의 기자재와 소독제, 항생제 등의 계절별 약품을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김건호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각종 세미나 및 무료시식회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여주지부는 관련기관 및 타축종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여주군 및 타축종과의 협조체제 유지,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형성

여주지부는 여주군 및 타축종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발생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여주지부는 여주군(임창선 군수, 권병렬 계



▲ 여주지부는 여주군의 지원 아래 농장출입구 및 공공처리장 무인 차량소독기 설치를 통해 입체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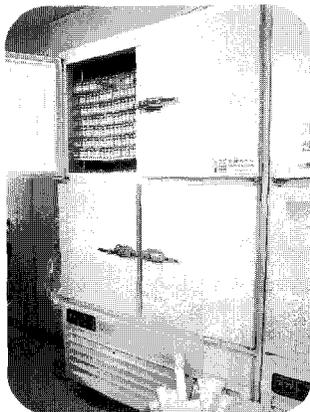


▲ 여주지부는 지난 2003년 10월 2일 여주도자기엑스포 행사 단지 내에서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장)의 지원 아래 농장출입구 및 공공처리장 무인 차량소독기 설치를 통해 입체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여주군 보조 80%(300만원), 자부담 20%으로 농장출입구 소독기를 설치하였고, 공공처리장의 소독기 설치시에도 군으로부터 1,800만원의 보조가 이루어졌다. 또한 군과 함께 각종 질병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주에서는 축종간 전파가 되지 않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 봄에 돈열이 발생했을 때는 낙농가들이 살처분에 동참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시에는 양돈농가들이 지원을 하여 신속하게 처리를 해 나갈 수 있었다.

한편 여주지부는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 돈열, TGE, 오제스키, 일본뇌염 등의 관납 백신이 나오면 여주 지역 모든 양돈농가에 문자메시지 연락을 통해 일괄 공급해 주고 있다.



▲ 지난 2003년 10월 10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무료시식회 행사중에 김건호 여주지부장(만우축)과 이규택 국회의원(좌측 두번째) 등이 돼지고기 수출부위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10일 개최된 무료시식회. 우측부터 김건호 여주지부장, 윤상익 여주축협조합장(분회 이사, 전 여주지부장), 임창선 여주군수, 구을희 여주군 농협지부장.

형성해 나가고 있다. 돈열, TGE, 오제스키, 일본뇌염 등의 관납 백신이 나오면 여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에 문자메시지 연락을 통해 일괄 공급해 주고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중요한 현안문제나 긴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각종 세미나 및 무료시식회, 불우 이웃 돕기 행사 전개

여주지부는 매월 23일 월례회의를 통해 공지사항과 당면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고



▲ 여주지부 임원들.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액비화사업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좌측부터 여주지부 원종섭 총무, 이용복 부지부장, 김건호 지부장, 여주군 권병렬 계장.



▲ 여주지부 사무실 내부 모습. 유경선 주임(앞쪽)과 원종섭 총무.

있으며, 관련업체의 협조 아래 사양, 방역, 질병관리 및 분뇨처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여주지부에서는 매년 2회 정도의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2일 여주 도자기엑스포 행사 단지 내에서, 10일 여주군민의 날에 공설운동장에서 2회에 걸쳐 돼지고기 수출부위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였다. 김 지부장은 “시식회를 통해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알리고 있으며,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우이웃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설날을 전후하여 라파엘의 집 등 장애시설, 무의탁 노인, 군부대를 위문 방문하여 돼지고기를 전달함으로써 양돈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한편 여주지부는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여름에는 야유회, 겨울에는 송년회 등의 단합대회를 1년에 2번 개최하고 있다.

양돈농가를 위한 법·제도 보완과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김건호 지부장은 “양돈농가를 위한 진정한

자조활동자금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위촉돼지나 도태모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도축장과 가공시설을 마련해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생산자들에게는 소득 증대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고품질의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권역별 특성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구난방 형태가 아닌 지역별로 프로젝트화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양돈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복 부지부장과 여주군 권병렬 계장은 “농지법에서 퇴비사, 원두막, 농막 등을 농지의 범위로 간주하여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액비가 비료로 활용될 수 있고 농지의 지력증진을 도모하며, 200톤급 설치시 50평의 토지만 확보되면 충분하므로 액비탱크 역시 농지전용과 재활용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 따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건호 지부장은 “양돈농가를 위한 법·제도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돈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돈**